

신약성경에 비추어 본 우리의 예배/이정현 목사

‘예배’를 나타내는 말로 가장 빈번히 사용된 헬라어는 ‘프로스쿠네오’(προσκυνεω)이다. 이 말은 ‘누구의 손에 입 맞추는 것’ 또는 ‘존경의 표시로 다른 사람 앞에 엎드려 절하다’는 뜻이다(마18:26, 요4:22-25, 계5:14). 이 단어를 한문에서는 ‘예도 레’(禮), ‘절 배’(拜)자를 써서 그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다. 학자들마다 예배를 달리 정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말한 폴 훈(P. Hoon) 교수의 정의가 적절한 것이라 생각된다. 예배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에, 다양한 말, 행위, 감정, 물질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신약에서의 예배는 구약의 것과 달리 먼저 장소의 변화가 일어났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할지’ 예배의 장소를 물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고(요4:21) 하심으로 장소의 중요성을 말해주지 않으셨다. 이것은 당시 성전과 회당을 예배의 중요한 장소로 여겼던 유대교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언급이었다. 예수님 부활 승천이후 사도들 시대에도 유대인과 초기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예배 장소는 주로 성전과 회당이었으나 이것이 점차로 유대인과 구별되어 제3의 장소가 되었다. 즉 집이나 다른 평범한 곳이 예배 장소로 이용되었다는 뜻이다(행2:42, 17:5-9).

예배일도 바뀌었다. 안식일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안식 후 첫날이 기독교인의 예배 날이 되었다. 이 날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는 ‘주의 날’(κυριακή ἡμέρα)로 표현되었고 오늘의 주일이 되었다고 본다. 신약 성경외의 가장 권위 있는 초기문서 중 ‘12사도의 교훈 집’이라 불리는 ‘디다케’(Didache)와 ‘사도적 전통’(The Apostolic Tradition)에도 정해진 이 날에 모여 예배했다는 기록이 있다.

다음은 내용의 변화가 있었다. 신약에 나타난 예배의 요소로는 말씀, 기도, 찬송, 방언, 헌금, 세례, 성찬, 교제, 권징, 축도 등이 있었는데 이것은 구약의 예배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세례와 성찬은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 사도들이 성실히 수행했던 중요한 예배의 요소가 되었다. 이것으로 인하여 초대교회의 예배는 말씀과 성찬이라는 2부 구조(two-part structure)를 형성하게 된다. 이처럼 신약에서의 예배는 장소나, 예배일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구약의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이런 성경적 예배를 근거로 현대 우리교회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주님이 예배의 장소보다 예배자의 심령상태를 강조하셨듯이(요4:23-25), 우리의 예배도 장소의 거룩성을 강조하기보다 어디에서 예배하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이 필요하다. 늘 진리에 입각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안식일에서 주일제로의 연속성을 잘 이해하여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겠다. 주 5일 근무제로 인하여 다른 날을 예배일로 계획하지만 청교도들처럼 조금은 고집스럽게 주일성수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장로교회가 따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도 ‘불필요한 노동을 금하고 오락과 유흥을 금하고 심지어 세상 말과 세상 생각까지 금하라고 했다. 뿐만아니라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전후의 시간은 성경 읽기, 기도와 찬송, 아이들 교육, 병자심방과 구제를 위해 하루 종일 사용하라’고 엄히 말한다. 우리가 존경하는 칼빈(J. Calvin)은 ‘예배시간에는 사람을 위하여 일체의 칭송이나 선물을 주거나 박수를 치지 말고 교인들은 설교 시간에 졸지 말 것’을 덧붙이고 있다. 이 같은 내용 외에도 성경에는 설교를 열정적인 마음으로(행17:11)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살전2:13), 헌금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힘껏, 힘에 지나도록, 그리고 미리 준비하여 드리라고 했다(고후8-9장). 성례를 은혜의 수단으로 알고 바르게 참여하는 것도 신자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권위, 영광, 거룩하심에 합당한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한다(계4-5장).

아무튼 성경에 근거한 예배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 세세무궁토록 그분에게만 영광 돌리는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현대 지상교회의 예배가 요한계시록 4-5장에 나타난 천상예배화 되어야 하겠다. -끝-